

이철우 “포항, 차세대 배터리 산업 중심지로 만들 것”

〈경북도지사 후보〉

기업체 관계자에 업계 현안 청취 “향후 10년간 8배 성장할 것” 전망 “투자기업 행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16일 포항 블루배터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배터리규제자유특구사업자협의회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철우 후보는 ‘포항을 차세대배터리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배터리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간담회 후에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현장투어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철우 후보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의해



16일 이철우도지사가 포항 배터리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8배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투자자와 경상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기업에게 행정적 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항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이후 배터리 소재-제조-리사이클링이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생태계가 구축되

었으며, 관련 인프라와 연구소 등이 모두 갖추어져 글로벌 선도를 위한 최적지이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1조 6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할 이끌었고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향후 포항을 차세대배터리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배터리 융합지원 체계 구축 ▲이차전지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여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에코프로 GEM, 해동엔지니어링, 솔루엠, 우전지앤에프, 에코프로 CNG, 피엠그로우, 뉴테크엘아이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오대송 기자 ods0822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지역개발채권매입대상 대폭 축소

경상북도는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면제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채권매입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채권매입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오대송 기자

‘현대 양궁월드컵’ 광주서 개막

올해 16번째로 열리는 현대 양궁월드컵이 광주에서 개막했다.

17일부터 6일간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리는 ‘광주 2022 현대 양궁월드컵(2차전)’에 38개국 38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활시위를 당겼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며 광주에서 열리는 첫 국제대회로 오는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초전이다.

이번 대회에는 각 부문 세계랭킹 1위 등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참가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

울산시-경남도-수자원공 등 협력 펀드 규모 200억... 생태계 활성화

울산시, 경상남도, 한국모태펀드,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조성한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가 1호 자(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울산·경남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울산시는 17일 비엔케이벤처투자가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의 1호 자펀드인 ‘비엔케이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펀드 규모는 200억 원이다.

이 펀드는 울산·경남 지역 소재, 규제자유특구 및 물 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으로, 기술력은 뛰어나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자생적인 지역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

모태펀드, 공공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 기반의 모펀드다. 동남권(울산·경남)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부산광역시, 충청권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조성됐다.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2021년 12월에 1차 출자공고를 통해 총 400억 원 규모의 2개 자펀드를 운용할 투자자로 비엔케이벤처투자, 경남벤처투자를 선정했다.

2024년까지(3년간) 매년 400억 원씩 총 1200억 원 규모로 6개 자펀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현재 운용하는 5개의 벤처펀드에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더해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출자를 꾸준히 추진,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더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백운산 치유의 숲’ 웰니스 관광지 선정

총 10km 산림치유 숲길

광양시 휴양림사업소의 ‘백운산 치유의 숲’이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재)전라남도관광재단은 웰니스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전남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및 육성 참여기관 공모를 추진해왔다.

‘웰니스’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로, 2000년대 이후 웰빙 트렌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등장했다.

2019년 6월 정식 개장한 ‘백운산 치

유의 숲’은 일반인,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나이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福 다福’, ‘여우野! 놀자’ 등 체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 참나무로 어우러진 ‘봉황돋움길’, ‘돼지꿈길’ 등 6코스 총 10km의 산림치유 숲길이 있으며 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마당, 풍욕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연 속에서 머무르며 힐링하는 관광객이 늘어난에 따라 지난해 치유의 숲을 방문한 체험객이 개장 이래 가장 많은 3,022명으로 나타났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목포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추가 보급

저소득층 60만원, 일반 10만원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재시행한다.

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1차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763대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차로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아 저녹스보일러 737대(저소득층 6대, 일반 731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보일러 1대당 지원액은 저

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 일반 10만원이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소유자의 동의 받은 세입자)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자이다.

신청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구매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접수기간 내에 목포시 환경보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내일부터 선착순 신청

부산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18년,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업에 종사하느라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기 쉬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되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2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 인원은 총 4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병원을 통해 25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



합천군 ‘햇양파’ 베트남 수출길 오른다

합천군과 합천유통은 2022년산 조생종 햇양파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열고, 본격적인 올해 양파 수출의 첫 단추를 꿰었다.

이번에 수출하는 첫 선적 물량은 총계약 300톤(13만 5000달러, 환화 1억 7250만원, 톤당 450달러)중 48톤(1200방/20kg)으로, 앞으로 발생할 추가 계약까지 포함하면 올해 햇양파 베트남 수출물량은 약 30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천(경남)=이도식 기자